

# 정읍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

###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말고개 공원~장명 배수지 200m 조명 설치, 도심 랜드마크 조성



이학수(맨 오른쪽) 정읍시장이 최근 열린 '말고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의 특색을 담은 랜드마크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가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가 정읍의 관문인 말고개 공원과 장명 배수지를 잇는 200m 길이의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도심권 숲길 네트워크 연속과 도심 탐방로 확보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연결다리는 성황산 중턱과 칠보산 끝자락에 조성되며 작은 정원과 산책로를 마련해 다리를 걸어가면서 아래 전망과 도심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스틸 만점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말고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사업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한 연

결다리 유형,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연결다리 설치사업의 최적의 안을 도출해 도심권 숲길 탐방로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탐방로에 그치지 않고 연결다리를

통행하면서 시가지 도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야간조명을 설치해 도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함은 물론,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아름답고 특색있는 연결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평화활동 기금 마련 콘서트 30일 남원노인복지관 강당

'한반도 평화활동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5시 남원노인복지관 대강당(2층)에서 열린다.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셋넷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중인 재즈뮤지션 이민정과 버클리음대 출신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운이 함께하며 입장티켓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남원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Après un reve', 'I love Paris', '평화의 인사', 'Love for sale', '셋넷의 노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벚꽃노래' 등을 들려준다.

고명철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장은 "뜻깊은 행사를 남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행사인 만큼 남원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셋넷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한국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 2004년 개교했으며 2005년부터는 통일부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중이다. 다양한 교육과 활동으로 통일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군 두번째 자연장...무장녹두숲자연장 개장

### 안장기수 4050기 수용 규모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영혼의 푸른쉼터" 고창군에 2번째 자연장 시설이 들어서면서 자연친화적 맞춤형 장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고창군에 따르면 무장녹두숲자연장(무장면 반송길12)이 오랜 공사를 마치고 개장 기념행사(사진)를 열었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북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무장녹두숲자연장은 급증하는 화장문화를 대비하고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비 40억2400만원을 들여 무장면 고라리 공설묘지 부지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관리사무실, 제레단, 주차장, 쉼터, 안장지가 포함된 3만7681㎡ 부지에 안장기수 4050기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됐다.

무장녹두숲자연장이 개장하면서 고창군은 전북도 최초로 공설 자연장 2곳(신림 푸른숲자연장, 무장녹두숲자연장)을 가진 지자체가 됐다.

지난 3월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무장면체육회는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무장녹두숲자연장 개장으로 고창군이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게 됐다"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고창군에서 전 생애 모든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개발 나선다

### 내년 6월까지 사용법령 개정 용역

고창군이 바지락 채취 인력 고령화 해결을 위해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사용법령 개정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고창군은 최근 하전어촌회의실에서 '곰소만 패류(바지락) 해양환경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현행 바지락 채취는 호미 등을 이용해 도수로만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창군은 바지락 어가의 고령화로 도수 채취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신규 채취어구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에 나서 방침이다.

용역의 주요과업은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사용

에 따른 바지락 양식어장 해양환경 및 어업실태 조사 ▲바지락 양식어장의 자원량 조사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표준 구성도 및 조업모식도 제시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산학협력본부가 용역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착수보고회를 통해서도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바지락 양식 어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책방안이 논의됐다.

고창군은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법령 개정시 어업인고령화로 인한 패류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와 채취비용 절감 등 패류 양식어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응문 일가 유골 특별위원회' 출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이 지난 27일 '김응문 일가 유골 특별위원회' (이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나섰다. <사진> 특별위원회는 최근 무안에서 수습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일가의 유골과 관련한 조사·분석과 선양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7일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김응문 일가의 유족,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무안기념사업회, 학계 전문가, 무안군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첫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경과와 진행 상황, 향후 추진사업 계획 등을 보고 받은 특별위원회는 수습된 유골 2구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와 DNA분석, 3D 스캔 및 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면 유골 수습의 의미와 명예

회복 사업의 확장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무안에서 살던 김응문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생 둘과 아들을 이끌고 참여했다가 모두 붙잡혀 참수됐다. 가족들이 머리만 수습해 몰래 묻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다 지난 4월과 5월 묘지 이장 과정에서 김응문·김자문 두상 유골이 수습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치매환자 100가구 AI추적시스템 지원

### 복지부 '치매안심마을 공모' 선정

남원지역 치매환자 가정 중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100가구가 치매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 속 지원을 받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확산 공모사업'에 남원시치매안심센터가 선정돼 국비 1억4000만원과 도비 1억6000만원 등 3억원의 관련 예산이 확보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치매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국 39개 치매안심센터가 응모한 공모에서 남원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발표를 거쳐 도내 유일의 사업 대상지자체로 선정됐다.

시가 응모한 '25시 치매 돌봄 구축으로, 더 나은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노암동과 왕정동 34개동에 거주하시는 치매환자 204가정 중 독거치매와 부부치매환자 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스마트 돌봄 플랫폼 시스템'과 함께 가정 내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화재, 사고, 방범, 실종 등으로부터 신속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영상추적 시스템'이 도입·적용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치매안심마을의 인적·물적 지원을 포함한 인프라에 더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치매안심마을을 구현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치매환자 관리와 치매가 있어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A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